

전북 미래 책임질 4월 10일 총선, 결과 예측 쉽지 않을 듯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이번 총선에서 △이낙연 신당의 출현 △중진 정치인들의 지역 재도전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선거 결과 예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신당 출현 예고
전북지역 총선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낙연 신당의 출현이다. 이낙연 신당이 출현하게 되면 도내 총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기도 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갑작스런 새해 첫날인 1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국민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며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를 이루고 대안을 내는 세력이 되겠다"고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이낙연 신당 · 중진의 재도전 · 선거구 축소 등이 변수

도내 정치에는 이낙연 신당의 영향력에 대해 태풍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존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전북에서 이낙연 신당의 입지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은 우세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현재까지의 도내 유권자들의 이낙연 신당 지지 의향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편이다. 유명 언론사인 프레시인에 따르면, 이낙연 신당 지지 의향과 관련한 전북지역 자체 여론조사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스트레이트뉴스의 '2023년 12월 정치 여론조사'를 볼 때 전북의 이낙연 신당 지지율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전북지역 응답자 68명을 별도로 떼어내 분석한 '이낙연 신당 지지 의향'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17.2%)과 어느 정도 공감(8.6%) 등 '지지의향'을 밝힌 비율은 25.8%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19.9%)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비(非)지지 응답'에 해당하는 별로 공감하지 않음(23.5%)과 전혀 공감하지 않음(50.7%)을 합한 응답자 비율은 74.2%를 기록, 대전(78.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비(非)지지 의향' 비율은 광주(66.7%)나 전남(66.5%) 등지와 비교해도 7%포인트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하지만, 도내 이낙연 신당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울바르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에 실망한 전북 유권자들이 존재한다고 도내 한 정가는 보고 있다. 이낙연 신당은 중도·제3지대를 표방하고 있어 양당 체제에 실망을 느낀 도내 유권자들이 이낙연 신당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북지역에서 이낙연 신당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재도전 예고한 중진 정치인들
21대 국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정치력 약화 지적이 많았던 탓에 중진 정치인들의 재도전에 전북지역 총선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4선을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전주병 출마가 예상되고 있고, 3선

의 유성엽 전 의원은 정읍고창에 재도전을 신청했다.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익산갑 재도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현역 의원의 경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동영 전 장관이 전주병에 재도전을 하게 될 경우, 현직인 김성주 의원과 3번째 대결을 치르게 된다. 1승 1패의 전적을 갖고 있는 두 인사는 22대 총선이 사실상 마지막 대결이 될 전망이다. 유성엽 전 의원은 윤준병 의원과, 이춘석 전 총장은 김수홍 의원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10석으로 유지될지 아니면 9석으로 1석이 줄어들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전북 국회 의석이 한 자릿

수로 떨어지는 건 전북 정치사에서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보낸 전북의 1석 축소안은 기존의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곳을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등 3곳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정서는 물론 도내 시간간 지형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10석 유지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어 최종 확정 결과가 변수가 되고 있다. 10석이 유지되지 못하면 도내 현역 의원들간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일택 의원(김제·부안)은 전북 축소 확정안은 민주당이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10석 유지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취재반

도의회 '의정의숲, 초록쉼터' 옥상정원 현판식 개최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의회 옥상에서 '의정의숲, 초록쉼터' 옥상정원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의장을 비롯해 전라북도경제부지사, 노조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판식은 '의정의숲, 초록쉼터' 정원에 새로 설치된 현판의 제막식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옥상정원 이름 공모에 당선된 참가자에게 꽃다발 증정식이 진행됐다. '의정의숲, 초록쉼터'는 앞으로 의회 구성원들에게 휴식과 영감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1일 일실 국사봉서 갑진년 새해 해맞이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와 심민 일실군수 등 참석자들이 도민들과 함께 갑진년 새해를 반기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도교육청, 5일까지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아동 소재 · 안전 확인 위해 대면 원칙... 소재 불분명시 수사 의뢰

전북도교육청은 2일부터 5일까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을 각 학교에서 실시한다. 이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아동과 입학연기·유예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을 포함해 공립학교 415개교 1만1,180여 명(잠정추산)이다. 도내 각 초등학교는 2~5일 사이에 예비소집을 진행하고, 학교 사정에 따라 예비소집 일시를 평일 근무시간 이외에 자녀시간 및 주말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장이 예비소집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할 수 있다. 특히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와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학대상 아동이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경우 2차 예비소집 실시, 가정방문, 내교요청, 유선연락, 행정정보이용 등의 조치를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소재·안전 확인 곤란 등 필요 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요청을 해야 한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예비소집일 당일에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면서 "202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교육대상자가 모두 취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4차 미래전북포럼'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최근 온누리홀에서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제4차 미래전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공학교육인증위원장(前 한양대 총장) 김우승 원장과 전북대학교 백기태 기획처장을 초청해 '지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지역대학총장단 등이 참석했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학교는 도내 대학들과 협력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정책 방안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해 지역혁신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향후 제5차 미래전북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특별할인 행사 진행

도내 대형마트 4개사 참여... 일부 품목 최대 25% 할인 가전업계, 방문·구매 시은품 증정 등 매장별 행사 다채

전북도민의 열망을 담아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축하하는 특별할인 행사가 1월 한달 내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할인 행사는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민들이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체감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와 유통업계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우선,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

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개사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순차적으로 각사의 특색이 반영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기념 할인행사를 도내 전 매장에서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홍보효과 증대를 위해 매장 내외부 및 주차장 등에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 및 배너 등 홍보물이 게시되고 매장내부의 스크린에는 특별자치도 홍보영상도 상영된다.

또한, 가전업계 대표주자인 삼성스토어·LG에스투스·전지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에 동참한다. 각사는 도내 전 매장 내외부에 특별자치도 축하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출범기념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지형 전북도 자치제도과장은 "도내 최고의 유통기업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함께 축하하고 범민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출범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교육청, 고문변호사 5명 위촉

김중오·강호석·나영주·국순화·김진미 변호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김중오·강호석·나영주·국순화·김진미 등 5명의 변호사를 본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고문변호사는 전북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의 제·개정 에 관한 사항 △계약서·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도교육청 및 교육감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교육감 소속 교직원 에 대한 법률 자문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매년 늘어나는 법률분쟁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활용해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규방, 여인들의 공간 이야기'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년 새해 기대감을 의미 있는 전시로 시작하고자 오는 4월 28일까지 '규방(閨房), 여인들의 공간 이야기'라는 주제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에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지나면 겨울 풍산 여자들이 규방(안방)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 너들만의 공간인 규방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일상 생활용품들을 조명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시는 규방 이야기, 바느질 이야기, 다듬이질과 다리미질 이야기, 재봉 이야기로 구성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장수 AI 방역 현장 방문

"초동방역 무엇보다 중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와 함께 신정 연휴인 1일 장수군에 소재한 거점소독시설과 전북동물위생시험소 방역 대책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번 점검은 올 동절기 도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후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에 직접 살피며 감도 높은 차단 방역을 주문하고 연휴에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먼저 거점 소독시설을 점검한 송 장관은 가축전염병의 전파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확산 내로 전파되므로



거점소독시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방문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빈틈없이 꼼꼼한 소독을 당부했다. 이후 전북동물위생시험소 방역 대책상황실로 이동해 감염 농장의 조기 발견과 초동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험소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1월 내내 폭설과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농장 소독이 쉽지 않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어 한파 기간에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소독장비는 동파되지 않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랫동안 림프스킨·AI 방역 활동으로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운 겨울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고려해서 시·군 지자체장의 책임 아래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달라"며, "강화된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학생 건강증진 교육자료 개발

도교육청, 보건수업자료·감염병 예방대응 동영상 등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성장기 건강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 지식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보건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한 자료는 △보건교육 수업자료 10편(PPT, 스크립트) △감염병 예방관리(학생 및 교직원용 모의훈련) 동영상 2편 △바른 자세 및 불균형 체형 예방 스트레칭 동영상 2편 △에듀테크를 활용한 흡연예방 및 마약 예방교육 교수학습자료집 등이 있다. 또 보건교육 수업자료 주제로는 △건강검진과 생활습관병 △비만예방과 건강 채증 유지하기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자담배 바로

알기 △음주 예방과 대처 △이성교제 △임신과 출산 △스트레스 이해와 관리 방안 △상해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마약 접근 예방을 위한 학부모 대상 마약 예방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1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개발한 자료를 각급 학교에 안내했을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학교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해 건강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누구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